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 갑절 늘린다

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해 200팀 운영 계획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등 인상
참여자 설문 결과 96% "함께하는 돌봄 만족"

올해 시행 10주년이 되는 '수눌음 돌봄공동체'의 운영 규모, 지원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웃끼리 도우며 양육 부담을 나누는 '수눌음돌봄공동체'를 올해 200팀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내달 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돌봄공동체 지원 규모는 전년 105팀(제주시 72, 서귀포시 33)에서 갑절가량 늘었다. 공동체별 지원금은 연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활동비는 아동 1인당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장애아동은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모집 대상에 중학생 돌봄 자녀 가구까지 포함시켰다. 영유아, 초·중학생 돌봄 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자조모임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 지연 등 장애아동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돌봄공동체는 연중 수눌음돌봄 활동을 중심으로 틈새 돌봄, 저녁 돌봄, 주말 돌봄 등 돌봄을 나누는 활동을 별개로 된다. 또한 한 운영 회의, 양육자 교육, 아빠 참여 활동 등 공동체 운영 활동을 이어간다.

희망자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한 이해를 돋기 위한 사업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매년 참여팀이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엔 481가구 1799명(양육자 942명, 아동 857명)이

참여했다.

작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녀 수 기준으로는 2025년 1자녀 가구 참여가 줄어든 반면 2자녀, 3자녀 가구의 참여 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수눌음돌봄 사업이 자녀 계획에 미친 영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4%가 "저출생 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업 참여에 따른 양육자의 변화(복수 선택)로는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64.2%), "독박 육아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남"(57.1%) 등을 꼽았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난 20일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 '제주 만감류 시식회'가 열렸다. 김글박람회조직위 제공

제주 감귤-미국산 만다린 비교 시식했더니…

레드향 등 제주 3개 품종 소비자 평가 '우위'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에 대응해 제주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 '제주 만감류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식 평가는 한라봉, 레드향, 씨니트 등 제주산 만감류 3개 품종과 수입 만다린을 1대 1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50여 명의 참여자들은 품종별 블라인드 시식을 실시한 뒤 스티커 투표를 통해 선호도를 평가했다. 이 과정에 비교 대상인 수입 만다린은 온주감귤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맛·향·식감 등 본질적 품질 요소만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평가 결과 제주 만감류 품종 모두 수입 만다린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레드향은 선호한 참여자는 수입산 대비 114.7% 더 많았다. 한라봉은 깊은 향과 맛의 조화, 레드향은 새콤달콤한 맛의 균형, 씨니트는 부드러운 과육과 껍질 벗기기 편한 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입 만다린의 경우엔 전반적인 품질은 제주 만감류와 유사했으나 신선도와 향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직위는 이번 평가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천혜향에 대한 추가 비교 시식회를 갖는 등 제주산 만감류의 우수성을 알리기로 했다.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무관세 수입 만다린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 만감류는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와 신선함, 풍부한 향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피항 선박 가득한 제주항 제주 전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21일 제주항 어선부두에 많은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형 인공지능으로 교통서비스 강화"

자치경찰, 교통 통합플랫폼 구축해 정보 제공

자치경찰이 인공지능(AI)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교통 흐름 개선과 함께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제주형 인공지능 기반 교통정보 통합플랫폼(AI T-BANK, Transport-Bank)'을 구축해 교통정책

지침과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형 AI T-BANK'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인프라를 통해 수집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도내 유관기관 및 부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교통정

보 제공, 체납 징수 지원, 교통정책 수립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횡단보도 등 ITS 인프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도내 기관·부서 간 폭넓게 공유해 현장 문제 해결로 바로 연결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 단속 업무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보행자 안전중심'의 신호 운영 방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개인정보 팔아넘긴 30대 공무원 검찰행

읍사무소 환경미화직 정보 넘겨 100만원 쟁취

읍사무소 환경미화직 근로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팔아넘긴 30대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활용도움 센터와 클린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60~80대의 환경미화직 근로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소속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미상자에게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판

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의 범죄수익을 쟁취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소속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미상자에게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판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회장 이·취임식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3만5천여 동문 및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34대 집행부 임원

직책	성명	회기
회장	김창국	26
명예회장	김대홍	4
직전회장	좌무경	25
감사	강윤보	19
감사	고기현	26
감사	정이홍	38
총무부회장	강은호	26
재정부회장	이권성	27
대외부회장	강동호	28
기획부회장	홍상필	30
윤리부회장	백희병	29
정무부회장	윤상은	27
조직부회장	송무열	28
장학부회장	김대생	34
의전부회장	양경택	29
체육부회장	고경남	31
봉사부회장	김기방	24
문화부회장	김승범	30
인재부회장	신명환	31
지원부회장	신훈석	29



이임회장
김창국(26회)
박홍주(28회)

일시 2026년 1월 31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 1부 정기총회(18:30) ▶ 참가비 30,000원
- 2부 이·취임식(19:00) ▶ 사무처 ☎ 010-2433-0345
- 3부 만찬



축

자랑스런 동문상
김영신(26회) 박남규(27회)
김경주(28회) 강문봉(30회)
변정환(30회) 이창희(35회)
박진형(46회)

이천만탑
송조명(10회)
재직공로패
김창국(26회)
강은호(26회)

공로패
오나연(25회) 차옥화(25회)
변인숙(27회) 송정열(38회)
백지훈(39회) 현대경(39회)
문원호(39회) 김재린(39회)

회기별 회장

회기	성명
1	양두길
2	김태승
3	김석진
4	배광승
5	김원하
6	문영희
7	김찬석
8	김영보
9	이창준
10	하맹사
11	한정호
12	강영호
13	오재윤
14	이호종
15	김경돈
16	양봉기
17	김태규
18	강명철
19	변창익
20	오경돈
21	이승용
22	강옥희
23	신진호
24	한영범
25	강인중
26	김창희
27	양홍전
28	김창진
29	문명원
30	이동화
31	이호상
32	국중일
33	심재웅
34	현운희
35	김정언
36	양숙규
37	김민범
38	김정효
39	백지훈
40	임석중
41	박우철
42	김하옹
43	강승보
44	고봉진
45	신진호
46	고희전

제주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임회장 김창국(26회) 취임회장 박홍주(28회)